

시민과 약속 팽개친 '몰염치' 어등산골프장

“300억 땅 기부·매년 2억 장학금 부당” 소송 제기

“특혜논란 속 골프장 허가 해줬더니...” 지역사회 비난

어등산 내 '시민의 휴식처 조성' 약속을 내팽개치고, 기부를 조건으로 '돈 되는 골프장'만 우선 개장해 특혜의혹에 시달렸던 어등산리조트가 이번에는 기부 약속마저 지킬 수 없다고 해 지역사회와 반목을 사고 있다.

특히 골프장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골프장 개장을 승인해준 광주시의 행정행태도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시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5월 광주지법에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게

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게 한 법원 강제조정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어등산리조트측은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가 골프장 인허가를 조건으로 여수시에 1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이 사건은 광주지법 민사 14부(조성필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24일 첫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원고측이 산정한 소송 금액은 93억6000여만원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2년 골프장 허가를 놓고 벌인 양측의 소송에서 골프장 운영조

건으로 어등산리조트가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게 기부하고, 9월의 수익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 당시 광주시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비난했지만, 어등산리조트에 이어 광주시도 이 안을 받아들였다.

기부 대상 부지는 전체 사업부지 273만㎡ 가운데 43%(유원지 41만6000㎡·경관녹지 75만3000㎡)로 300억원(2006년 감정가 21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어등산리조트는 당시 9월 수익금의 사회환원 방식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의 비난이 이어지자 '골프장 적자와 관계없이 매년 2억원을 장학재단(금조장학회)에 기부'하기로 광주시와 협약까지 맺었다. 이 협약은 체육시설(골프장 27홀)을 운영할 경우 대중제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금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기부해야 한다는 당시 강제조정안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이 협약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등산리조트는 애초 시민편의 시설인 유원지,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관광단지 선(先)개장을 조건으로 골프장 개발을 허가받았으나, 자금난에 시달리다며 골프장 선개장을 광주시에게 요구해 비난을 받았다. 광주시는 당시 골프장 개장을 허가하면서 외부 투자를 받아 시민편의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년여가 다되도록 방치된 상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부도 직전이라고 해 시민 비난여론까지 감수하며 골프장 개장을 허가해 줬더니 이번에는 기부했던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가 아니냐”면서 “민선 6기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해질 10:35
해짐 19:51 달짐 23:09

오후에 비 그쳐요

주말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21/26	보성	비	20/25
목포	비	20/25	순천	비	20/26
여수	비	20/24	영광	비	20/26
나주	비	21/26	진도	비	20/25
완도	비	20/25	전주	비	20/28
구례	비	20/27	군산	비	20/25
강진	비	20/25	남원	비	19/27
해남	비	20/25	속산도	비	20/24
장성	비	19/26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1.0	서	0.5~1.0
남해	남서	1.0~2.5	서	1.0~1.5
서해	남서	0.5~1.5	남서	0.5~1.0
남해	남서	1.5~2.5	남서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05:40	10:59	17:51	23:01
	00:13	06:16	12:24	18:26

주간 날씨

날짜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날씨	☁	☁	☁	☁	☁	☁	☁
기온	21/28	22/28	23/26	23/27	23/30	24/29	24/28

생활지수

- 식중독: 70
- 운동: 10
- 빨래: 20

영어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물 모의고사'된 6월 학력평가

수능 변별력 논란 거세질 듯

지난달 12일 치른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영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두 문제 틀리면 3등급으로 추락한다. 이에 따라 '물수능'에 따른 변별력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공개했다.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라는 교육부 방침에서 예고된 바 있지만 올해 통합형으로 출제된 영어 영역은 만점자가 지금까지 모든 모의평가 및 수능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인 126점을 받은 만점자가 전체 응시인원의 5.37%에 달했다. '물수능' 논란이 일었던 2012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만점자 비율(2.67%)의 갑절이나 됐다. 특히,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100점)이 바로 1등급 컷라인이 됐다. 2등급 구분 표준점수도 124점(원점수 97점)에 달했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2등급으로, 두 문제를 틀리면 3등급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영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의 쉬운 A형(133점)보다 낮은 것은 물론, 표

준점수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점수로,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지고 어려우면 최고점이 올라간다.

애초 교육부는 올해 통합형으로 치러진 영어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쉬운 A형보다는 어렵게, 어려운 B형보다는 쉽게 낸다고 밝혔으나 실제 채점 결과는 쉬운 A형보다 더 쉽게 출제된 셈이다.

수학 영역도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수학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 B형은 132점으로 작년 수능의 A형(143점), B형(138점)보다 각각 7점, 6점 떨어졌다.

국어 영역은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28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4점 낮았으나 B형은 133점으로 작년보다 2점 높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으로 추정된 만점자 비율은 ▲국어 A형 1.99%, B형 0.54% ▲수학 A형 1.37%, B형 1.88%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수험 준비의 혼란을 막기 위해 9월 모의평가의 출제 역시 6월 모의평가의 경향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6월 모의평가를 참고해 시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청포도 한번 따볼래 2일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에서 열린 청포도 따기 체험행사에 참가한 신세계어린이집 원생들이 포도 농장 하우스에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청포도를 따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등 총경급 267명 인사

동부서장 김홍균·서부서장 김근

경찰청은 2일 광주 동부서장에 김홍균 광주청 생활안전과장을 발령하는 등 광주·전남을 비롯, 총경급 267명에 대한 정기 인사(전보)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22면〉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이번 인사로 서병을 홍보담당관이 곡성서장, 김근 정보과장은 광주 서부서장으로, 김철우 수사과장은 장흥서장, 이수경 경무과장은 완도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오윤수 치안지도관이 생활안전과장으로, 김원국 치안지도관은 정보화장비과장으로 발령났다.

김재석 광주 서부서장은 광주청 경무과장으로, 김도기 해남서장은 광주청 보안과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이기욱 광주 남부서장은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김성열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은 광주 남부서장으로 부임하게 됐고 박상우 전남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은 보성서장, 박희순 전남청 112 종합상황실장은 함평서장, 민성태 전남청 생활안전과장은 영암서장, 김군 전남청 보안과장은 경기청 치안지도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회용 면도날 손님 2명에게 사용하면 '과태료 50만원'

이용실과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속옷 세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중위생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앞으로 위생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소홀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

도 높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실과 미용실 업자는 이용기구와 미용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명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하다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복중알카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59만원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추신D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뽕뽕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